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5> 본지풍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성품인 자신의 본바탕을(本地) 알면, 저절로 흘러넘치는 온갖 지혜(風光)로써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이다. 태양처럼 밝은 부처님의 지혜가 넘쳐흐르는 이런 자비심 없이 수행자가 고요한 선정에만 집착하여 그것이 공부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병이 깊은 것이다. <선가귀감> 75장에서 말한다.

禪學者 本地風光 若未發明則 孤峰玄關 擬從何透 往往 斷滅空以為禪 無記空以為道 一切俱無以為高見 此冥然頑空受病幽矣 今天下之言禪者 多坐在此病。

참선하는 이들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드러내지 못하면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겠느냐? 더러는 '단멸공(斷滅空)'을 선(禪)으로 삼기도 하고, '무기공(無記空)'을 도(道)로 삼기도 하며,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 경계'를 높은 소견으로 삼기도 하니, 이들은 모두 감각한 경계에 집착하는 완공(頑空)으로서 병이 깊기만 하다. 지금 천하에 참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병에 걸려 있다.

'본지풍광(本地風光)'에서 '본지(本地)'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풍광(風光)'은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본지풍광'을 달리 말하면 보조 스님이 <수심결(修心訣)>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공적영지(空寂靈

切俱無)'라고 하여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높은 소견으로 삼기도 하는데, '단멸공'이나 '무기공'이나 '일체무'는 공(空)에 집착함으로써 감각한 경계에 떨어져 생기는 병이니 모두 '완공(頑空)'이다.

환한 자리에서 신령스런 앞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처럼 '단멸공'이나 '무기공' 또는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 경계'에 집착하여 화두를 더 이상 들지 않고 마니 그 병은 깊기만 하다. 부처님 세상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행의 마지막 자리에서 뚫어야 할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孤峰玄關)'을 꿰뚫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높고 아득한 진리의 문'이란 참선 수행자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목숨 걸고 탐구해야 할 화두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자의 생명은 화두이다. 이 화두를 통하여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무명을 다 떨쳐야 비로소 공부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고요하고 감각한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행

'단멸공'이란 화두를 쟁길 때에 마음을 잘못 쟁기므로 '공(空)'에만 집착하여 아무 것도 없는 고요하고 감각한 경계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행

화두 통해 마음 속 무명 떨쳐야 공부 마칠 수 있어 맑고 향기롭게 닦는 수행만이 부처님 세상 가는 길

자는 이 자리를 화두공부의 마지막인 줄 알고, 이 고요한 경계에 안주하고 집착하여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 경계를 '침공제저(沈空滯寂)'이라고 하니, 이 경계는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닌 경계이므로 '무기공'이라고 한다. '무기(無記)'에서 '기(記)'는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여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무기는 선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선도 악도 아닌 성품을 말한다. 이 텅 빈 성품에만 집착하여 감각한 곳에서 더 이상 화두를 쟁기지 않고 안주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기공'이다. 이 이치를 모르는 수행자들이 이 경계에서 '일체무(一

向上一關 措足無門. 雲門云 光不透脫 有兩種病 透過法身 亦有兩種病 須一一透得始得.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미세한 번뇌도 발붙일 곳이 없다. 운문 스님은 "마음의 빛이 모든 번뇌를 꿰뚫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고, 마음의 빛이 법신을 꿰뚫을 뒤에도 또한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모름지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꿰뚫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글은 대혜 (1089-1163)스님의 <서장>에서 인용한 글로 원전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와 있다.

"운문(864-949) 스님은 말한다. 마음의 빛이 모든 번뇌를 꿰뚫지 못하는 데에 두 가지 병이 있다. 모든 곳에 밝지 못하므로 눈앞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모든 법이 공(空)임을 꿰뚫었더라도 은근하게 어떤 경계가 있는 듯해서 또한 마음의 빛이 마지막 무명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법신(法身)에도 두 가지 병이 있다. 법신에 다가갔더라도 법집(法執)을 떨치지 못했기에 자기의 지견이 아직 남아서 법신 언저리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이다. 또 하나는 실사 법신을 꿰뚫었더라도 화두를 놓쳤다면 곧 무수 기척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수 없으니, 이 또한 병이다.[不見 雲門大師 有言 光不透脫 有兩般病 一切處不明 現前有物 是一又 透得一切法空 隱隱地 似有箇物 相似 亦是光不透脫 又 法身 亦有兩般病 得到法身 為法執不忘 已見猶存 坐在法身邊 是一直透得法身去 放過 卽不可 子細檢點來 有甚麼氣息 亦是病]"

대혜 스님께서도 수행자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인 이 경계는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 있는 곳이니 중생들은 참으로 알아채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중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 가까운 십지(十地) 보살들도 알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알기 어려운 곳이지만 화두 수행자는 화두에 의지하여 화두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지나가야 한다.

어려운 수행이지만 그 수행의 가치를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맑고 향기롭게 닦아 가는 수행만이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병을 알면 도리어 향기로운 약이 되어 공부를 꿰뚫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不行芳草路 難至落花村.

향기로운 꽃밭 길을 거치지 않고 아름다운 꽃동네엔 가기 어려워.

■원운 스님(송사경 사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7>

계승

<바라문경(婆羅門經)>에 나오는 계승(偈頌)이다. 계승이란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거나 교리를 운문체로 기록한 것으로, 시적 운율로 간결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운문체의 가요, 설가, 시구, 계문(偈文), 송문(頌文)을 뜻하고, 협의적으로는 초기 불교에서 경전의 구성 요소로 삼는 십이부경(十二部經)의 하나로서 흔히 경문의 한 단, 또는 전체의 마지막에 두는 운문체의 시구를 말한다.

계승에는 일정한 가르침을 제시한 뒤에 설법 내용을 강조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남은 걸인 바라문에게 위의 계승을 지어 주며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아들을 향해 읊으라고 일러 주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계승의 여러 가지 효과를 활용하였다. 첫째, 시적 운율로 되어 있는 계승이 일반적인 대화보다 외워 지니기가 쉽다는 점이다. 둘째, 계승으로 아버지의 불쌍한 처지를 읊음으로써 아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셋째, 아들 혼자서 아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읊게 함으로써 아들이 온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넷째, 만약 그대로 아들이 외면할 경우 대중

'예술상담'과 비슷, 정서적 변화 유도 통합 이끌어내 부처님은 문학·음악적 특성 계승 통해 통합 활용

있을 때 운문체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압축하는 중송(重頌) 또는 응頌, 경전의 1절 또는 종결 뒤에 아름다운 글귀로 묘한 뜻을 읊어 놓은 고기송(孤起頌 또는 飄頌)이 있다. 중송과 고기송의 차이는, 중송은 본문의 내용을 거듭해서 읊고 운율을 맞추지 않는 형태로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기송은 아름다운 문구로 운율을 맞추으로써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송은 내담자의 인지적 성숙에, 고기송은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위에 예시한 계승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길에서 걸인 바라문을 만나 구걸하며 지내게 된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바라문은 아들을 장가보내고 재산을 물려준 뒤 쫓겨나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부처님께 여쭙었다. 말씀을 듣고 난 부처

님이 아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했다. 다섯째, 대중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게끔 함으로써 앞으로도 함부로 아버지를 내칠 수 없게 하였다. 즉 대중으로 하여금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여 거들어서 읊고 운율을 맞추지 않는 형태로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기송은 아름다운 문구로 운율을 맞추으로써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송은 내담자의 인지적 성숙에, 고기송은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계승을 현대 상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문학과 음악을 상담에 적용한 '예술상담'이라 할 수 있다. 예술상담의 장점은 무엇보다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무의식 깊이 저장되어 혼수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부처님은 문학의 인지적 측면과 음악의 정서적 특성을 계승을 통해 통합하였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사천왕(四天王)

사찰을 찾아가면 입주문을 제일 먼저 만난다. 입주문을 지나 고즈넉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왕문을 지나게 된다. 천왕문 안에는 협상궁과 명치가 산만 한 사천왕들이 들쭉 죄우로 불자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뿌리부러한 눈에 놀라 읊음을 터뜨리는 아이

들도 있다.

칼 탑 등을 손에 들고 사람을 받아내 밟고 있는 사천왕은 왜 이렇게 협상궁은 눈초리로 불자들을 바라보는 걸까?

사천왕은 수미산(須彌山)의 중턱에 있는 사왕천(四天王)의 주신(主神)이다 각각 동서남북 한 방향씩을 맡아 수미산을 수호한다. 동쪽은 지국천왕(持國天王), 남쪽은 증장천왕(增長天王), 서쪽은 광목천왕(廣目天王), 북쪽은 다문천왕(多聞天王:毘沙門天王)이다.

사천왕은 사대천왕(四大天王)·호세사천왕(護世

四天王)이라고도 불리며 육계육천(欲界六天)의 최하위를 차지한다. 수미산 정상 중의 중앙부에 있는 제석천(帝釋天)을 섬기는 사천왕은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건달바·부단나, 구반단·페라다, 응·비사사, 야차·나찰 등을 각각 부하로 부린다. 또한 사천왕은 이들 외에도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왕산(持雙山) 등 일곱 겹의 산맥과 태양·달 등도 지배하고 있다.

증장천왕(增長天王)은 용(龍), 지국천왕(持國天王)은 검(劍), 다문천왕(多聞天王)은 비파(琵琶), 광목천왕(廣目天王)은 탑(塔)을 들고 있다. 강지연 기자

무문관 수행 중
한 송이 꽃을 그려 놓고,
열반에 든
한 선사의 치열했던
삶과 수행의 기록!

무문관에서

탄하 삼성선사 자서전
香河三省禪師 自敘傳

53일간의 단식참회로 양심이 곧 불성임을 깨닫지만
몸은 불구가 된 삼성스님의
초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

모든 위선과 구속에 거침없는 사자후를 하여 과각승으로 불렸던
한 선사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삶과 수행의 생생한 현장 기록인 만행일기와 무문관 수행일기는 수행자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자 체험담이다.

은주사 최만희 편저/신국판/304쪽/10,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926-8361 영입 02)3672-7181-5

동학사장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출가 이야기

진중하면서도 발랄한 새내기 스님들의 마음자리와 출가생활에 대한 성찰
구원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뜻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따뜻하게 그려져 있다.

바람 속 이야기

동학사 편집실 | 국판 | 240쪽 | 값 9,000원

화두시_선과 화두의 만남

선사의 정점인 화두시, 최초로 소개되는 무의자 화두시의 세계

한국 선사의 발흥을 이끈 진각국사 혜심의 영송시만을 모아 화두와 함께 번역하고 지구풀이 및 해설을 덧붙인 책. 화두의 묘미를 짧은 시 형식에 담은 화두시는 대중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깨달음의 노래로, 선의 대중장인 진각국사가 대중의 실참실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화두 24개를 택하여 지은 영송시를 수록하고 있다.



이삼기 지음 | 국판양장 | 310쪽 | 12,000원

www.buddhbook.co.kr

은주사